

조명기구 사출 생산관리 종사자에게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

성별 남 나이 35세 직종 사출생산관리 직업관련성 낮음

1 개 요

전○○은 1994년 W사에 입사하여 영업관리 및 사출생산관리업무를 해 오다가 1999.9.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되어 치료하고, 2000.3. 재발하여 골수이식치료를 받았고 동년 5월에 사망하였다. 유가족은 근로자의 동료작업자에게서 작업 중 벤젠등의 유기용제를 취급한다는 사실을 듣고, 작업관련성을 의심하여 요양신청하였다.

2 작업환경

1994.9. 입사하여 영업관리를 하였고, 1996년말부터 사출작업을 시작하면서 사출생산관리 업무를 하게 되었다. 생산관리업무는 제품의 사출생산 작업계획수립 및 작업지시 등 전체 사출작업을 관리하고 사출영업 및 업무부하가 많을 때는 직접 사출작업도 하였다. 원료는 합성수지(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나일론, ABS)이며, 색을 내기위해 안료를 첨가하였고, 기타 방청제를 사용하였다. 사출금형 청소시 걸레나 면봉에신나 등을 묻혀서 닦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금형틀은 방청유를 사용하여 닦은 후보관했었다. 세척제(신나 등)의 사용량은 아주 소량이었으며, 세척시간은 30분~1시간정도였는데, 1회/1주에서 1회/1개월까지 작업내용에 따라 간헐적으로 세척하였다. 사출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기용제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세척제와 방청유에 대한 물질시료를 분석한 결과 백혈병 유발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유가족이 동료 근로자로부터 사출작업시 벤젠을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였는데, 해당 근

로자와의 면담 및 물질 확인 결과, 그 물질의 정확한 이름은 벤젠이 아니라 벤지딘 계열의 염료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의학적 소견

전○○은 입사 전까지 특이한 질병력이 없었고, 가족 중에도 혈액질환자가 없었다. 담배는 이틀에 한 갑정도 피웠고, 음주는 일주에 1회 이하로 마셨다고 하였으며, 평 소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경력이 없었다고 한다.

1992년부터 입사 전까지 자동차 서비스업 영업직으로 근무했고, 1994.9.23. 입사하 여 영업관리를 하였으며, 1996년 말 사출생산관리 업무를 하였다.

4 결 론

전○○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은

- ① 입사 이후, 사출공정의 작업관리 및 직접생산업무를 하던 중 발병하였는데,
- ② 직업성 백혈병은 벤젠, 방사선 노출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 ③ 본 회사 사출공정에서는 백혈병 유발물질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사출작업 환경 측정결과 관련 유기용제가 검출되지 않았고,
- ④ 사출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 방청제에 대한 물질분석 결과 백혈병과 관련된 유기용제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작업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